'者'字의 부호구결에 대하여

서민욱*

요 약

이 글은 『瑜伽師地論』 권5와 권8에 기입된 부호구결 '□者({.□·})'과 '□者({ '□·¯})'의 독법을 밝히기 위해서 쓰여졌다. 그리고 '□者'字의 부호구결을 논의하는 가운데 부호구결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먼저 하나의 부호구결자는 그에 대당되는 하나의 석독구결자를 나타낸다기보다는 대당되는 석독구결자를 포함한 구성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부호구결자 {·}은 석독구결자 'ㄱ(ㄴ/은/온/는/논)'에만 대당되는 것이 아니라 'ㄱ'을 포함한 석독구결자 구성을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 다음으로 부호구결에서 '2점'과 '(短)선'이 혼기되어 나타나는 예가 있다. 이 경우 필자는 '2점'과 '(短)선'이 같은 통사구조에서 혼기되어 나타나면 그것은 '2점'을 표기한 것이라고 보고, 동일한 통사구조에서 '(短)선'만으로 표기한 형태가 일정하게 나오면 그것은 '(短)선' 자체가 어떤 형태를 표기하기 위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부호구결의 '2점'이 석독구결의 'ㅅ(ㅎ)'를 포함한 구성을 나타낸 것이 아닐까 가정해 보았다.

*핵심어: 부호, 구결, 유가사지론, 해독, 초조대장경

* 가톨릭대

1. 서론

2000년 7월 角筆 구결자료가 발견되었다. 기존의 구결자료와 달리 이 구결자료는 口訣의 吐를 문자가 아닌 點과 線을 이용하여 나타내었다. 처음 발견된 角筆 구결자료는 誠庵博物館 소장의 『瑜伽師地論』 권8, 5이었고, 그 후로 誠庵博物館 소장의 『周本華嚴經』 권22, 36, 57, 6과 湖林博物館 소장의 『瑜伽師地論』 권3, 『周本華嚴經』 권31에서 각필 구결이 추가로 발견되었다. 앞으로도 계속 발견될 것으로 전망된다.

발견된 지가 얼마되지 않은 만큼 角筆 符號口訣은 그 讀法을 아직까지 알 수 없는 것이 많다. 또한 문자가 아닌 부호구결이라는 점에서 점과 선을 해독하는 방법이 쉽지 않다.[1] 이 글은 기록된 연대가 크게는 200년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음에도 똑같이 釋讀했다는 점과 文語의 保守性을 고려하여 『瑜伽師地論』 권5와 권8에 기입된 角筆 符號口訣과[2] 『瑜伽師地論』 권20에 기입된 釋讀口訣을 서로 비교하여 각필 부호구결 중에서 '□者({.□·}) '과 '□者({ □ ⊡ ¯}) '의 독법을 밝히고자 한다.[3]

일견 석독구결과 비교하여 '□者({.□·}) '과 '□者({ □⊡ ¯}) '의[4] 독법을 밝히는 과정은 쉬운 듯 보이나 여기에는 하나의 구성으로 보이는

---

1) 각필 구결자료에 나오는 점과 선을 해독하는 방법은 이승재(2000ㄴ)을 참고하기 바란다.

2) 『瑜伽師地論』 권8을 주자료로 사용하고, 『瑜伽師地論』 권5는 보조자료로 사용했다.

3) 부호구결 자료 『瑜伽師地論』 권8과 권5에 대한 서지사항은 이승재(2000ㄴ:138)으로 미루고, 석독구결 자료 『瑜伽師地論』 권20에 대한 서지사항은 남풍현(1999:10)으로 미룬다. 그리고 이 이후로 인용한 문헌자료의 약호는 각필 부호구결 자료 『瑜伽師地論』 권5과 권8는 <유가부 5>, <유가부 8>로, 석독구결 자료 『瑜伽師地論』 권20은 <유가석 20>으로 표기한다.

4) 하나의 한자에 찍어 넣은 복합 부호를 '{ }'로 감싸서 표기한다.

'□者({.□·}·)'이나 '□者({ □·□ ¯})'이 『瑜伽師地論』이란 하나의 텍스트 안에서도 여러 종류의 混記가 나타나므로 어느 것을 옳은 표기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와, '□者({.□·}·)'과 '□者({ □·□ ¯})'에 나타나는 2점과 (短)선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따라온다. 본 논의는 이들을 소략하게나마 다뤄보고자 하는 데 목표를 둔다.

2. 해독된 부호구결의 재고찰

'□者'字의 부호구결을 논하기 전에 이제까지 밝혀진 부호구결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5]

번호	『瑜伽師地論』 권20의 석독구결자	『瑜伽師地論』 권5, 8의 부호구결자		표음
		이승재	남풍현	
1	ㅁ	□·(의문형어미)	□·(호릿고)	고
2	ㅅ		·□	과/와
3	十	□.	□. (아긔)	긔/기/히
4	ㅅ	⊡	⊡	ㄱ/기
5	ㄱ	⊡	⊡	ㄴ/은/온/는/논
6	ㅣ	.□	.□	다
7	ㅅ		□·	ᄃ
8	ㄴ	□·	□·	ㄹ/을/올/를/롤
9	ㄱ	□¯		ᄠ/읊/옳
10	夕	□.	□.	며/으며/ᄋᆞ며
11	ㅎ	.\□(읎다)	.\□(읎다)	ㅁ/음/옴
12	ᄉᆞ	□·		사
13	ㅊ	□	□	ㅅ

5) 『瑜伽師地論』 권5(5:23 欄上)와 권8(10:22 欄上)에서 漢字를 □(사각형)으로 인식한 흔적이 보인다(이승재 2000ㄴ:각주 32). 따라서 본고도 이를 따라 한자를 □ 모양으로 표기하기로 한다.

14	ᄋ			아/어
15	ᅥ			여
16	ᄋᆞ			의/ᄋᆡ
17	ᄋᆡ			이
18	ᄒᆞ			져(이승재), 졔(남풍현)
19	하			하
20	호			오/호

이 밖에 남풍현(2000)은 『瑜伽師地論』 권5과 권8에 기입된 2점에 대해서 "{}은 '란'을, {.}은 '홀디다'를, {.}은 '合符'"를 나타낸다고 하였으며, (短)사선에 대해서 "{ }은 '누'를, {}은 '혼'을, {}은 '다혼올'을, {}은 '로'를, {}은 'ᄒᆞ견'"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승재(2000ㄴ)은 『瑜伽師地論』 권5과 권8에 1점이나 2점 외에 직선, 직각선, 대각선, 곡선, 포형선 등의 선도 등장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 중에 하향 곡선(예를 들면 { })은 '뒤에 오는 부분을 먼저 해독한 다음 이 곳으로 올라오라(일종의 역독선)'는 기능을 담당하고, 상향 곡선(예를 들면 { })은 '위로 올라가서 읽으라'는 기능을 담당한다고 하였다. 또한 대각선({})은[6] '앞에 찍은 점과 선 중에 틀린 부호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교정부호의 기능을, 직선이 몇 개의 한자에 걸쳐 있는 것({})은 '합부'의 기능을 나타낸다고 하였다.[7]

해독된 부호구결자 중에는 의심스러운 것이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부호구결자 중에서 필자가 새롭게 첨가하고자 하는 것도 있다.

먼저 의심스러운 것 중에서 표 3번의 석독구결자 '十(긔/기/히)'는

6) 대각선이 거의 수평에 가깝게 누워 있다.

7) 위의 표에는 이승재(2000ㄴ)에서 해독한 부호구결자 외에도 강의 시간에 이승재 선생님께서 해독하신 부호구결자도 들어가 있다.

이 석독구결자와 잘 어울리는 'ᄋᆞ(아/어)(표 14), ᅀᅥ(여)(표 15), ᄉᆡ(의/ᄋᆡ)(표 16)'와 함께 논의할 수 있다. 부호구결『瑜伽師地論』권8과 석독구결『瑜伽師地論』권20에는 다음과 같은 예가 나온다.

(1) 가. ·□ ⊡ □ □⊡¯
此 中 略 義 者 <유가부 8, 14:5-14:8>
가'. 此 中ᄋᆞᄂᆞᆫ 義ㅣᄆᆞᄅᆞᆫ[者] <유가석 20, 25:10-25:17>
이 中앗 義잃ᄃᆞᆫ

(1.가)에서 '中'字의 가운데 1점과 아래 1점은 모두 왼쪽으로 더 가 있다. 그리고 이 점들과 관련하여 이승재(2000ㄴ:144-145)는 '이 中긔({ ˙□ ⊡}),[8] 此 中앗({□⊡}), 此여 中긔({·□⊡}), 此여 中앗({·□⊡})'이라고 해독을 하고 있다. 이 중에서 '此여 中긔({·□⊡}), 此여 中앗({·□⊡})'의 '여({·□})'는 그 해독이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남풍현(2000)은 {·□}을 'ㅅ(과/와)'(표 2번)로 해독하고 있다.

(2) 가. □ □ □ □ .□ □ □ □ □ □ □ □ ·□ □ □ □ □ □ ·□
又 樂 有 二 種 一 非 聖 財 所 生 樂 二 聖 財 所 生 樂
<유가부 5, 1:22-2:1>
나. 是 [如]ᄒᆞᄂᆞᆫ 聖法ᄋᆞ+ 略ㅁᆞᆫ 二種 有ㅌᆡ 一 有學法ㅅ 二 无學法ㅅㅣᆡ <유가석 5, 3:22-4:6>
이 다ᄒᆞᆫ 聖法아기 略콘 二種 잇다 一 有學法과 二 无學法과이다

(2.가)는 병렬되는 명사구에 부호구결 {·□}이 찍혔다. 이는 'ᅀᅥ(여)'로도 볼 수 있으나, 'ᅀᅥ(여)'는 뒤에 'ㅣᆡ(이다)'가 연결되는 구조가 석

8) 원래 석독구결자 '+(긔/기/히)'에 대응하는 부호구결자는 {□}이나 '中'字에는 특이하게 {⊡}(1점이 오른쪽으로 더 가 있음)으로 기입되어 있다.

독구결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ㅅ(과/와)'는 석독구결에서 뒤에 'ㅢㅣ(이다)'가 연결되는 것이 자연스런 구조이다. (2.나)를 보면 알 수 있다. 따라서 부호구결자 {·□}은 석독구결자 'ㅅ(과/와)'에 대응된다고 보는 것이 옳은 독법이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이 'ㅅ(과/와)'({·□})에 '中+(긔)'나 '中ㅋㅊ(앗)'이 연결될 수 있느냐이다. 『瑜伽師地論』 권5와 권8에 나오는 '此'는 글자 모양이 독특하다. '此'의 '止'가 작고, 특이하게 적혀 있다. 그래서 '此'에 기입된 점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힘들다. 필자는 '此'에 기입된 점이 '{ □}(이)' 또는 '{□}(ㅅ)'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此'의 글자 모양이 독특하여 {·□}처럼 보이는 듯하다.

또한 이승재(2000ㄴ)이 '앗'으로 해독한 '{⊡}'은[9] 'ㅋ(아/어)'(표 14번)의 점 위치가 남풍현(2000)과 다르다. 부호구결 자료를 보면 '更'에 부호구결이 '{ □ }'으로 기입되어 있다(유가부 5, 1:15, 1:16, 8:15. 유가부 8, 14:2, 14:4). 그리고 그 의미 기능은 석독구결 자료에 출현하는 '更ㅋ(가시아)'와 의미 기능이 동일하다. 따라서 이승재(2000ㄴ)이 파악한 'ㅋ(아/어)'의 위치가 옳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을 종합하면 '此여 中긔({·□⊡})'는 '此 中+(이 中긔)'이거나 '此ㄷ 中+(此ㅅ 中긔)'로 볼 수 있고, '此여 中앗({·□⊡})'은 '此 中ㅋㅊ(이 中앗)'이거나 '此ㄷ 中ㅋㅊ(此ㅅ 中앗)'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더하여 'ㅋ+(아긔)'는 부호구결에서 {·□}으로,[10] '[於]ㅋ+(의긔)'는 부호구결에서 {□}으로[11] 기입되었다. 또한 부호구결에서 '□時'자에 기입된 {□□}(<유가부 8, 9:20>)은 석독구결의 'ㄷ 時ㅗ+'(<유가석 20,

9) 정확히는 {⊡}모양에 가깝고, 다만 위 1점과 아래 1점이 모두 왼쪽으로 더 가 있다.

10) 남풍현(2000)에서 부호구결 {□}의 독법을 'ㅋ+(아긔)'로 보았으나(표 3번) {□}은 '+(긔/기/히)'에만 대응된다고 볼 수 있다.
'ㅋ+(아긔)'가 '中'의 경우에는 {⊡}으로 기입되었다(<유가부 5, 6:7>).

11) '[於]ㅋ+(의긔)'가 '中'의 경우에는 {⊡}모양으로 기입되었고, 다만 위 1점과 아래 1점이 나란히 오른쪽으로 더 가 있다(<유가부 5, 7:9>).

5:17-5:22>)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은 석독구결자 'ᄋᆞ(오/호)', 'ㅣ(이)', 'ᄋᆡ(아/어)'와 모두 대응되지만 부호구결 자료를 자세히 관찰하면 'ᄋᆞ(오/호)'에 대응되는 {□}은 대체로 □에서도 왼쪽 윗 모서리의 가장 끝에 찍혔고, 'ㅣ(이)'에 대응되는 {□}은 'ᄋᆞ(오/호)'에 대응되는 {□}보다 오른쪽 아래로 찍혔으며, 'ᄋᆡ(아/어)'에 대응되는 {□}은 'ㅣ(이)'에 대응되는 {□}보다는 아래에, 'ㅅ(과/와)'에 대응되는 {·□}보다는 위에 찍혔다는 것이다.

부호구결 자료를 보면 석독구결자 'ᄒᆞᆷ(곰)'에 대응하는 부호구결자는 {□}으로 보인다.

(3) 가. □□□□⊡□□.□
由 此 因 緣 彼 得 久 住 <유가부 5, 6:4-6:6>
이 인연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오래 살 수가 있다(현대어역)

가'. 此ᄀᆞ(?) 能ᄀᆞ 所對治ㄴ 斷ㅅᄉᆞᆫ 法ㅣ 所作 多ㅅㄱᆞᆫㅅㄴ [由]ᄋᆡㄱᆞᆫㅅᄆᆞ 故ㅅ 疾疾ᄒᆞ 能ᄀᆞ 得ᄒᆞᆷ 其 心ㄴ 正住ᄉᆞㅣᄒᆞ 三摩地ㄴ 證ᄉᆞㅣᄂᆞᆫᄒᆞᆫᄀᆞ <유가석 20, 14:22-15:4>
이 能며 所對治를 斷ᄒᆞ릿 法이 所作 多ᄒᆞᆫ둘 ᄇᆞᆫ ᄃᆞ로 故ᄒᆞᆫ 疾疾히 能며 시러곰 그 ᄆᆞᅀᆞᆷ 正住히이하 三摩地ᄅᆞᆯ 證히이겨리며

(3.가)의 부호구결에서 '得({□})'과 (3.가')의 석독구결에서 '得ᄒᆞᆷ(시러곰)'은 그 의미 기능이 동일하다. 이는 석독구결 'ᄒᆞᆷ(곰)'이 부호구결 '{□}'에 대응됨을 알려준다. 그리고 이 위치는 부호구결에서 'ㅅᄉᆞㅁ(호리고)'의 'ㅁ(고)({□})'가 찍히는 위치와 비슷하다. 아직까지는 단정적으로 이 둘의 위치를 정확히 식별하여 말할 수는 없다. 다만 필자가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은 표음상 '고'가 들어가는 형태가 비슷한 위치에

찍혔다는 사실이다.

석독구결자 'ᄆᆞ(로/으로/ᄋᆞ로)'는 부호구결 {□}에[12] 대응되는 것으로 보인다.

(4) 가. □□□□□ ㄴ□ᆞ □□□□□□ ㄴ□ᆞ □□ᄆᆞᄂᆞ □□□□ᆞ
由彼諸天爲 自因緣 亦能變化爲 他因緣 亦能變化
<유가부 5, 7:21-8:5>
그 하늘들은 자기의 인연을 위해서도 변화할 수 있고 남의 인연을 위해서도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현대어역)

나. □□ □□□□□□ □□□□ᆞ□ᆞ
是故 依和合依處 施設同事因 <유가부 5, 14:8-14:13>

나'. 是故ᄆᆞ 說ᄆᆞ 名下 聖所住ᄋᆞ十 住ᄂᆞᄉᆞᄀᆞᄀᆞᄂᆞᄒᆞᄋᆞ<유가석 20, 31:2-31:7>
是故로 니ᄅᆞᆷ 일하 聖所住아기 住ᄒᆞ건뎌 호리다

(4.가)는 동일한 통사구조인데 앞의 緣에는 {□}이 기입되어 있고, 뒤의 緣에는 구결자 'ᄂᆞᄂᆞ(로/으로/ᄋᆞ로)'가 기입되어 있다. (4.나)와 (4.나')는 부호구결 '是故({□□})'가 석독구결 '是故ᄆᆞ(是故로)'에 대응됨을 보여준다. 따라서 (4)의 예들을 통해서 부호구결 {□}이 석독구결 'ᄆᆞ(로/으로/ᄋᆞ로)'에 대응됨을 알 수 있다.

이제까지 이미 해독된 부호구결자와 새로운 부호구결자를 살펴 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者'字의 부호구결에 대하여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

12) 'ᄆᆞ(로/으로/ᄋᆞ로)'는 'ᄂᆞ(여)'를 나타내는 1점({□})과 비슷한 위치에 찍히나 'ᄂᆞ(여)'는 1점이 □의 바깥쪽에 찍히고, 'ᄆᆞ(로/으로/ᄋᆞ로)'는 1점이 □의 안쪽에 찍히는 듯하다.
'ᄉᆞ(ㅅ)'을 나타내는 1점({□})도 'ᄆᆞ(로/으로/ᄋᆞ로)'와 비슷한 위치에 찍히나 'ᄉᆞ(ㅅ)'을 나타내는 1점이 왼쪽으로 더 가 있다.

3. '□者({.□·□})'과 '□者({ ˙ □ ·□ ¯})'의 해독

이 장에서는 '□者'字의 부호구결에 대한 올바른 표기와 독법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부호구결자를 하나하나씩 짚어 나가보기로 하겠다.

'□者'는 『瑜伽師地論』 권8에 {.□·}, {.□/(또는 .□-)}, {·□·}, {.□·}, {.□·}, {□·}, {.□□}으로 혼기된 것과 { ˙□ ·□ ¯}, {□ ·□ ¯}으로 혼기된 것이 보인다.[13] 먼저 '□者'이 {.□·}, {.□/(또는 .□-)}, {·□·}, {.□·}, {.□·}, {□·}, {.□□}으로 혼기된 것과 관련하여 {.□}과 {.□} 중에 올바른 표기를 찾아야 한다.[14]

---

13) 현대어로 '-라 함은'으로 번역되는 '□者'는 『瑜伽師地論』 권8(주자료)과 권5(보조자료)에 모두 195회 출현한다(부록 참조).
{.□·} : <유가부 8> 39회, <유가부 5> 35회({.□□}로 기입된 것이 보이나(1회) 이도 {.□·}로 분류하였다.) (총 74회)
{.□/(또는 .□-)} : <유가부 8> 11회, <유가부 5> 4회 (총 15회)
{·□·} : <유가부 8> 1회, <유가부 5> 0회 (총 1회)
{.□·} : <유가부 8> 82회, <유가부 5> 0회 (총 82회)
{·□·} : <유가부 8> 6회, <유가부 5> 0회 (총 6회)
{□·} : <유가부 8> 1회, <유가부 5> 3회 (총 4회)
{.□□} : <유가부 8> 1회, <유가부 5> 1회 (총 2회)
{ ˙□ ·□ ¯} : <유가부 8> 10회, <유가부 5> 0회 (총 10회)
{□·□ ¯} : <유가부 8> 1회, <유가부 5> 0회 (총 1회)

14) '□者'이 {.□·}, {.□/(또는 .□-)}, {·□·}, {.□·}, {.□·}, {□·}, {.□□}으로 혼기된 것 중에는 앞의 '□'이 {·}으로 나타나거나 아무런 부호구결의 표기없이 나타나는 것도 있다. 부호구결 {·}은 석독구결 'ㄱ(ㄴ/은/온/는/논)'에 대응한다. 그러나 '□者'이 {·□·}으로 나타나는 예(<유가부 8, 10:6-10:9>)에서 {·}은 앞 뒤 문맥상 석독구결 'ㄱ(ㄴ/은/온/는/논)'이 올 자리가 아니다. 또한 '□者'의 '□'이 아무런 부호구결의 표기없이 나타나는 것은 기록자의 실수나 오랜 세월로 흔적이 지워진 것으로 보인다. 이 예들은 이 글의 논의에서 제외한다.

(5) 가. □□□.□□□

最極暴惡者謂 <유가부 8, 10:6-10:9>

가′. 世俗正法施設圓滿ㅣㅣㄴㄱㅅㄱ[者] 謂ㄱ <유가석 20, 2:23-3:5>

世俗正法施設圓滿이다ᄒᆞᆫᄃᆞᆫ 닐온

나. □□□□.□ □□□□□□·□ □□□□□·□

又樂有二種 一非聖財所生樂 二聖財所生樂 <유가부 5, 1:22-2:1>

나′. 是[如]ᄼᆞㄴㄱ 聖法ᄋᆞ十 略ㅁㄱ 二種 有ㅓㅣ 一 有學法ㅅ 二 无學法ㅅㅣㅣ <유가석 20, 3:22-4:6>

이 다ᄒᆞᆫ 聖法아ᄀᆡ 略콘 二種 잇다 一 有學法과 二 无學法과이다

다. □□[15] □.□

何等 爲 三 <유가부 8, 1:5-1:7>

다′. 何等ㄴㄱㄴ 五因ㅣㅣㄴᄉᆞㅁ <유가석 20, 22:23-23:6>

어느 다ᄒᆞᆫᄋᆞᆯ 五因이다 ᄒᆞ리고

라. □□·□□□□□□□□.□

云何如理作意施設建立 <유가부 5, 18:1-18:1>

라′. [云]何ㄴㄱㄴ 出世間 一切種 淸淨ㅣㅣㄴᄉᆞㅁ <유가석 20, 20:3-20:8>

엇ᄒᆞᆫᄋᆞᆯ 出世間 一切種 淸淨이다 ᄒᆞ리고

(5)의 예문들은 부호구결 자료와 석독구결 자료에서 통사구조가 같은 예문들만 뽑았다. (5.가)의 {.□}은 『瑜伽師地論』 권8에서 {.□}과 混記된다. 하지만 {.□}은 『瑜伽師地論』 권8에서도 (5.가)와 같은 통사구조일 때 {.□}으로 기록된 빈도가 가장 높으며, 『瑜伽師地論』 권5에서는 (5.가)와 같은 구성일 때 {.□}과 혼기된 양상이 전혀 보이지 않고 {.□}으로만 표기된다. 또한 (5.나, 다, 라)의 경우는 『瑜伽師地論』

15) □ 안에 있는 (短)사선이 정 중앙에 있다기보다는 오른쪽으로 더 가 있다.

권8에서도 혼기되는 예 없이 1점({.□})으로만 표기된다. 후술되겠지만 {.□}은 석독구결 'ᄂᆞᄆᆞᄉᆞᆺ ㅣ(홇디다) 또는 ᄂᆞᄒᆞ ㅣ(호리다)'에 대응한다. 그리고 석독구결에서 'ᄂᆞᄆᆞᄉᆞᆺ ㅣ(홇디다)' 또는 'ᄂᆞᄒᆞ ㅣ(호리다)' 뒤에 'ᄂᆞᄀᆞ ㅅᄀᆞ[者](ᄒᆞᆫ도)'이 연결되는 통사구조는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5.가)와 같은 문맥에서 {.□}은 자못 의심스럽다.

2장에서 {.□}(표 6번)은 석독구결 'ㅣ(다)'에 대응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5)의 예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단순히 'ㅣ(다)'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5)에 의하면 부호구결 자료에서 보이는 {.□}은 석독구결 자료에서 'ㅣㅣ(이다)'와 정확히 대응한다.

그러나 다음 예들은 {.□}이 과연 'ㅣㅣ(이다)'를 표기한 것인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다.

(6) 가. .□ □ ⊿ □ □□□ .□

如 是 等 法 名 內 分 力 <유가부 5, 10:9-10:13>

가'. 是 [如]ᄒᆞᆫ 等ᄂᆞᄀᆞᄂᆞ 名ᄒᆞ 住處障ㅣᄂᆞᄒᆞ ㅣ<유가석 20, 27:3-27:9>

이 다히 다ᄒᆞᆫ올 일하 住處障여 호리다

나. .□ □ □ □[16] □

如 是 无 記 法 <유가부 5, 13:18-14:3>

나'. 是 [如]ᄒᆞᆫ 精勤ᄒᆞᆺ 善品ᄂᆞ 修ᄂᆞᄉᆞᆫᄃᆞ 者ᄀᆞ <유가석 20, 18:1-18:8>

이 다히 精勤히 善品을 修ᄒᆞ릿 者ᄂᆞᆫ

16) 1점이 정 중앙에서 왼쪽으로 더 가 있다.

(7) 가. □□□ □[17] □ ⊡[18] .□

隨 其 所 應　盡 當　知 <유가부 5, 13:18-14:3>

가'. 又 此 三摩地ㄴ 得ᄒᆞ斤 當ㅅ 知ᄆᆡ <유가석 20, 14:22-15:4>

또 이 三摩地를 얻어ᄂᆞᆯ 반ᄃᆞ기 알오다

부호구결자 {.□}은 (6)에서는 석독구결자 '[如]ᄒᆞᆫ(다히)'에 대응하고 (7)에서는 석독구결자 'ᄆᆞᆡ(오다)'에 대응한다. 즉 (6), (7)에서 {.□}의 독법은 모두 (5)에서 {.□}의 독법과 또 다르므로 어느 것이 {.□}의 올바른 독법인지 파악할 수 없다. 이는 다음의 부호구결 해독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8) 가. □□□[19] □⊡ ⊡□□

聲 聞 地　中 我 當 廣 說 <유가부 5, 19:2-19:5>

가'. 我ㄱ 乞食受用ㄴ 因 [爲]ᄒᆞᄋᆞ 身 得ㅠ 久住ᄂᆞᄒᆞ <유가석 20, 8:19-9:2>

나는 乞食受用ᄋᆞᆯ 因 삼아 身 시러곰 久住하져

나. □□□ .□⊡ ⊡

血 塗 其 手 者 謂 <유가부 8, 10:6-10:9>

나'. 正行不滅圓滿ㅣㅣㄴㄱㅅㄱ[者] 謂ㄱ <유가석 20, 3:11-3:15>

正行不滅圓滿이다 ᄒᆞᆫ ᄃᆞᆯ온

다. □ □□□ ⊡□□ □

應 知 此 相　略 有 七 種 <유가부 5, 16:13-16:15>

다'. 當ㅅ 知ᄆᆞᆡ 此 障ᄀᆞ十 略ㅁㄱ 二種 有0ㄴㄱㅣㄱㄱ (*난상 ㅌㄴㄱㅣㄱㄱ) <유가석 5, 26:3-23:09>

---

17) 사선이 좀더 아래로 내려와 있다.
18) 1점이 좀더 아래로 내려와 있다.
19) 1점이 정 중앙에서 왼쪽으로 더 가 있다.

반ᄃᆞ기 알오다 이 障아기 略콘 二種 잇 ᄒᆞᆫ인뎌(*난상 ㅅᄒᆞᆫ인뎌)

(8)의 가, 나, 다에서 모두 {⊡}으로 찍힌 부호구결자는 비슷한 문맥의 석독구결에서 각각 'ㄱ(ᄂᆞᆫ)', 'ㄱ(온)', 'ㅁㄱ(콘)'에 대응된다. (5), (6), (7)의 결과와 같다. 하지만 (5), (6), (7)과 (8)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5), (6), (7)에서 부호구결자 {.□}에 대응되는 석독구결자의 표음들은 모두 '다'를 포함하고 있으며, (8)에서 부호구결자 {⊡}에 대응되는 석독구결자의 표음들은 'ㄴ/은/온/는/ᄂᆞᆫ'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부호구결자 {.□}은 'ㅣ(다)'를 포함한 석독구결자 구성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고, 부호구결자 {⊡}은 'ㄱ(ㄴ/은/온/는/ᄂᆞᆫ)'을 포함한 석독구결자 구성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런 부호구결자의 해독 방법은 모든 부호구결자의 해독에 적용될 것이다. 다만 이때 같은 위치에 기입된 부호구결자라도 어떤 한자에 기입되고 어떤 통사구조(어떤 점이나 선)와 연결되느냐에 따라 그 독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2장에서 표 11번의 {ˎ□}은 남풍현(2000)과 이승재 선생님[20] 모두 'ㅎㄷㅣ(읎다)'로 추정했다. 이 부호구결의 해독을 위해서는 '應知({□ ˎ□})'와 '當知({⊡ .□})'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부호구결 '應知({□ ˎ□})'는 『瑜伽師地論』 권20 석독구결에서 '知ㅅㅎ[應]ㄷㅣ(知홈ㅅ다)'로 나타난다. 그러나 부호구결 '當知({⊡ .□})'는 『瑜伽師地論』 권20에서 '當ㅅ 知ㅇㅣ(반ᄃᆞ기 알오다)'로 표기된다. 이 사실은 {ˎ□}이 단순히 'ㅎㄷㅣ(읎다)'에 대응된다기보다는 {ˎ□}은 'ㅅㅎ[應]ㄷㅣ(홈ㅅ다)'에 대응되고, {.□}은 'ㅇㅣ(오다)'에 대응됨을 말해준다.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ˎ□}의 '(短)선'이 'ㅎ'와 관련된 것이 아닐까 하는 점이다. 하지만 이를 논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短)선'과 '2점'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봐야 한다. 왜냐하면 부호구결 자료 곳곳에서 '2점'과 '(短)선'이 혼기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20) 이는 강의 시간에 이승재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내용이다.

다음을 보자.

(9) 가. □ □ .□ ㄱ
親 近 故 者 <유가부 8, 4:20-5:2>
□ □ .□ ㄱ
邪 敎 故 者 <유가부 8, 4:20-5:2>
□ □ .□ ㄱ
數 習 故 者 <유가부 8, 4:20-5:2>
□ □ .□ ㄱ/
作 意 故 者 <유가부 8, 4:20-5:2>
□ □·[21] .□ ㄱ/
由 犯 故 者 <유가부 8, 5:21-6:7>
□ □·ㄹ[22] .□ ㄱ/
由 生 故 者 <유가부 8, 5:21-6:7>
□ □ □· .□ ㄱ/
由 相 續 故 者 <유가부 8, 5:21-6:7>
ㄱ □·ㄹ .□ ㄱ/
由 事 故 者 <유가부 8, 5:21-6:7>
ㄱ ㄱ □ □·/[23] .□ ㄱ/
由 起 惡 業 故 者 <유가부 8, 5:21-6:7>
ㄱ □ □· .□ ㄱ/
由 究 竟 故 者 <유가부 8, 5:21-6:7>
□ .□ ㄱ/
見 倒 者 <유가부 8, 6:10-6:14>

---

21) 맨 위의 1점과 맨 아래 1점이 왼쪽으로 조금 더 가 있다.
22) 역독선({ㄱ})으로 보이는 선도 그어져 있다.
23) 사선이 더 밑으로 내려가서 □의 오른쪽 아래 모서리에 붙어 있다

나. □□□.□⊡
無 有 哀 愍 者 <유가부 8, 10:9-10:11>
□□□.□⊡
不 淨 而 取 者 <유가부 8, 11:23-12:2>
□□.□⊡
他 妻 妾 者 <유가부 8, 12:21-13:2>
□□.□⊡
若 彼 使 者 <유가부 8, 13:8-13:13>
□□□.□⊡
破 壞 和 合 者 <유가부 8, 13:20-14:2>
□□□.□· ⊡
由 猛 利 貪 者 <유가부 8, 16:4-16:8>
□.□⊡
具 足 者 <유가부 8, 17:16-17:19>
다. □.□⊡
見 取 者 <유가부 8, 3:15-3:16>
□□.□⊡
所 緣 故 者 <유가부 8, 4:20-5:2>

(9.가)는 부호구결 자료 『瑜伽師地論』 권8에 나오는 '□者({.□⊡})' 중에서 {⊡}이 {□}(또는 {□/})으로 혼기되는 예들을 모두 모아 놓은 것이다. (9.나)는 『瑜伽師地論』 권8에 나오는 '□者({.□⊡})' 중에서 {⊡}이 {⊡}으로 나타나는 것들 중 일부만을 발췌해 놓은 것이다. (9.다)는 {.□⊡} 또는 {.□□}(혹은 {.□□/})으로 혼기되는 '□者'가 {.□⊡}으로 표기되어 있는 예들이다. 이 예들은 모두 같은 통사구조이다. 그런데 (9.가)와 (9.나)에서 '2점'과 '(短)선'이 혼기되어 기입되었다. 이는 '2점'과 '(短)선'이 같은 표기일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9.다)에서 {⊡} 또는 {□}(혹은 {□/})이 {⊡}으로 표기된 것은 '(短)선'이 '2점'의

표기이고 {□}은 기록자의 실수나 오랜 세월로 2점 중 1점이 지워진 것을 나타낼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 '□者({.□·})'와 관련된 예들 말고도 이와 같은 가능성을 보여주는 예들이 부호구결 자료에 등장한다. 여기서 일부만 보여주면 다음과 같다.

(10) 가. □ ㇔□
應 知 <유가부 8, 1:5-1:7>
□ ..□
應 知 <유가부 8, 14:19-14:22>
나. □□□□□□□□□□㇔[24] ˙□
又 顯 非 撥 流 轉 依 處 緣 故 <유가부 8, 17:6-17:12>
□□□□□□□□ 丶[25] ˙□
又 顯 非 撥 流 轉 士 夫 故 <유가부 8, 17:6-17:12>

(10.가)의 '應知'는 부호구결의 다른 부분에 등장하는 '應知'와 동일한 의미 기능으로 쓰였다. 하지만 첫 번째 문장의 '應知'에 기입된 {㇔□}은 '(短)역사선'이 '2점'에 가까워 '2점'인지 '(短)역사선'인지 식별하기 어렵다. 또한 두 번째 문장의 '應知'는 {㇔□ }이 {..□}으로 기입되어 있어 '(短)역사선'이 '2점'일 가능성을 높게 해 준다. (10.나)도 두 문장이 같은 통사구조인데 위의 문장은 '緣'에 '(短)사선'이 기입되어 있고, 아래 문장은 '夫'에 '2점'이 기입되어 있다. 이도 '(短)선'과 '2점'이 같은 표기일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런데 '(短)선'이 '2점'이 아닐 가능성을 보여주는 예가 있다. 2장에서 '-ㄹ' 동명사 어미('尸(ㄹ/ㅭ/ㅭ)'(표 9번))로 본 부호구결자 {□}이다. 이는 『瑜伽師地論』 권8에서 어김없이 '(短)

24) 사선과 역사선의 크기가 더 작고 왼쪽으로 가 있다.
25) 역사선이 더 작고 □의 오른쪽 아래 모서리에 붙어 있다.

수평선'으로만 기입된 듯하다.[26]

---

26) 부호구결『瑜伽師地論』권5와 권8에는 '廣說'에 다음과 같은 부호구결이 기입되어 있다.

(1) 가. 廣說({ □⊡¯}) <유가부 8, 8:2-8:8>
나. 廣說({ □□¬}) <유가부 8, 8:2-8:8>
다. 廣說應知({ □⊡:\ □ ,□}) <유가부 5, 1:21-1:22>
라. 廣說應知 ({ □⊡¯ □ ,□})<유가부 5, 3:20-3:22>
마. 乃至廣說({□□ □ □}) <유가부 8, 10:5-10:6>
바. 乃至廣說({□ □ □ .□}) <유가부 8, 17:6-17:12>
사. 廣說({□ .□(2점이 2자 아래로 잘못 찍혀 있다.)}) <유가부 5, 19:2-19:5>
아. 廣說({□□}) <유가부 5, 19:2-19:5>
자. 廣說({ □ .□}) <유가부 5, 19:2-19:5>

석독구결『瑜伽師地論』권20에는 '廣說'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2) 가. 廣ㅂ 說尸ㅅㄱ 知ノ亇 [應]ヒ ㅣ<유가석 20, 25:18-26:2>
너비 니롫 ᄃᆞᆫ 知ᄒᆞᆷ다
나. 廣ㅂ 說尸 乃ㅋ 至ㅂ<유가석 20, 19:16-19:22>
너비 니롫 니를이사

(2)를 통해서 '廣說'은 석독구결에서 '廣ㅂ 說尸(너비 니롫)'로 표기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와 비교할 때 부호구결에서 '廣說'에는 { □□¬}이 꼭 기입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1)은 '가, 나, 라'를 제외하고는 { □□¬}이 제대로 기입되지 않았다. 일단, 옮기는 사람의 실수나 오랜 세월로 흔적이 지워졌다고 가정되는 것은 논의에서 제외하면 (1)의 '다, 마, 바, 사, 자'가 문제가 된다. 여기서 (1.다)는 {⊡:\}으로 표기되었는데 이는 2점이 誤記여서 위에 '(短)역사선'이 덧그어진 것으로 보인다('尸(ㅱ/읊/옳)'을 표기하던 '(短)수평선({□¬})'이 아니라는 점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 듯하다). (1.바, 사, 자)는 '尸(ㅱ/읊/옳)'를 표기하기 위해 { .□} 또는 {.□}이 기입되었다. 부호구결 { .□} 또는 {.□}에 대응되는 석독구결은 'ノ尸ㅊㅣ(홇디다)'이다(점의 방향은 그리 중요하지 않은 듯하다. 그리고 이 부호구결은 다른 한자, 다른 부호구결과 함께 기입되면 'ノㅈㅣ(호리다)'에 대응된다). '尸(ㅱ/읊/옳)'을 표기하기 위한 {□¬}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 .□}(또는 {.□}) 자체가 'ㅱ/읊/옳'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따로 {□¬}을 표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1.마)의 {.□}은 { .□} 또는 {.□}의 1

(11) 가. □□□□ □ □⊡¯

又 此 諸 句 略 義 者 <유가부 8, 10:23-11:2>

□□□⊡¯

又 略 義 者 <유가부 8, 11:2-11-5>

나. ·□⊡[27] □□⊡¯

此 中 略 義 者 <유가부 8, 14:5-14:8>

此 中 略 義 者 <유가부 8, 17:19-17:22>

此 中 略 義 者 <유가부 8, 19:2-19:4>

此 中 差 別 者 <유가부 8, 13:6-13:7>

나'. 此 中ㅋㅌ 義ㅁㄹㅅㄱ[者] <유가석 20, 25:10-25:17>[28]

이 中앗 義잃ᄃᆞᆫ

闇昧ㅅ [令]ㅁㄹㅅㄱ[者] <유가석 20, 11:2-11:10>

闇昧ᄒᆞ잃 ᄃᆞᆫ

다. □⊡[29] □□⊡¯

此 中 略 義 者 <유가부 8, 12:4-12:7>

此 中 略 義 者 <유가부 8, 16:2-16:3>

점이 지워진 듯하다.

27) 가운데 1점과 아래 1점이 모두 왼쪽으로 더 가 있다.

28) 석독구결에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 예도 보인다.

樂ㅋ 習近ㅅㄹㅅㄱ[者] <유가석 20, 24:17-25:01>

즐기오 習近홇 ᄃᆞᆫ

雜 居住ㅅㄹㅅㄱ[者] <유가석 20, 8:19-9:2>

雜 居住홇 ᄃᆞᆫ

이 예가 부호구결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따라 부호구결자 {□¯}의 독법을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다. 현재로서는 부호구결자 {□¯}이 '(短)선'일지라도 'ㅅ(ᄒᆞ)'를 포함한 구성을 나타내기보다는 석독구결자 'ㄹ(ㅀ/읋/옳)'를 나타낸다고 본다.

29) 가운데 1점과 아래 1점이 모두 왼쪽으로 더 가 있다.

此 中 略 義 者 <유가부 8, 16:8-16:10>

라. ·□ □[30] □ □ ⊡¯

此 中 略 義 者 <유가부 8, 20:15-20:18>

마. ·□ ⊡[31] □ □ ⊡¯

此 中 略 義 者 <유가부 8, 13:18-13:9>

바. □ ⊡[32] □ ··□[33]

此 中 略 義 <유가부 8, 16:11-16:17>

따라서 필자는 (10)과 (11)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려본다. '2점'과 '(短)선'이 같은 통사구조에서 혼기되어 나타나면 그것은 '2점'을 표기한 것이다. 하지만 동일한 통사구조에서 '(短)선'만으로 표기된 형태가 일정하게 나오면 그것은 '(短)선' 자체가 어떤 형태를 표기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면 석독구결자 'ㄕ(ㅭ/읊/옮)'를 나타내기 위한 부호구결자 {□¯}이 그것이다.

이제 '2점'과 '(短)선'의 관계가 설명되었으니 과연 '2점'이 무엇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였는지 알아봐야 할 것이다.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2점'은 'ㅅ(ㅎ)'를 포함한 구성을 나타내는 부호구결자로 보인다.

석독구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석독구결자는 뭐니뭐니해도 'ㅅ(ㅎ)'자이다. 'ㅣ(이)'나 'ㄱ(ㄴ/은/온/는/논)'도 많이 쓰이지만 'ㅣ(이)'는 계사 겸 주격 조사 등을 나타내기 위해 많이 쓰이고, 'ㄱ(ㄴ/은/온/는/논)'은 주제 보조사 겸 '-ㄴ' 동명사 어미를 나타내기 위해 많이 쓰이는 것이다. 단독 표현으로는 'ㅅ(ㅎ)'가 으뜸으로 많이 쓰인다고 할 수 있다. 석독구결『瑜伽師地論』권20에서도 'ㅅ(ㅎ)'가 1163항목으로 가장 많

30) 아래 1점이 왼쪽으로 더 가 있다.
31) 가운데 1점과 아래 1점이 모두 왼쪽으로 더 가 있다.
32) 가운데 1점과 아래 1점이 모두 왼쪽으로 더 가 있다.
33) 원래는 '略義者({□ □ ⊡¯})'였을 텐데 者가 생략되고 義에 독특하게 부호구결이 기입되었다.

이 출현한다.

이렇게 많이 출현하는 'ㅇ(ㅎ)'를 부호구결로 표기하기 위한 방법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부호구결에서 다른 부호구결자와 동일하게 □의 어떤 위치를 지정해서 점이나 선으로 'ㅇ(ㅎ)'를 표현했다면 너무 자주 나타나서 우리가 금방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부호구결 자료를 본 사람은 'ㅇ(ㅎ)'를 나타낼 만큼 일정한 위치에 자주 출현하는 부호구결자가 없음을 알 것이다.

부호구결에서 석독구결의 'ㅇ(ㅎ)'(정확히 얘기하면 'ㅇ(ㅎ)'를 포함한 구성)를 표기한 방법은 2점이었다.

(12) 가. □ □[34] □ .□[35]

何 筌 爲 三 <유가부 8, 1:5-1:7>

가'. 何等ㅇㄱㄴ [爲]四ㅐㅣㄴᄉᆞᄆᆞ <유가석 20, 14:17-14:22>

어느 다ᄒᆞᆫᄋᆞᆯ 四이다 호리고

나. □ □ □ □ □ □ .□

云 何 煩 惱 上 品 相 <유가부 8, 5:18-5:21>

나'. [云]何ㅇㄱㄴ 能熟解脫慧ㄴ[之] 成熟ㅐㅣㄴᄉᆞᄆᆞ <유가석 20, 6:14-6:17>

엇ᄒᆞᆫᄋᆞᆯ 能熟解脫慧ㅅ 成熟이다 호리고

다. □ □ □ □ .□

云 何 業 雜 染 <유가부 8, 9:13-9:15>

---

34) '(短)사선'이 오른쪽으로 더 가 있다. 이 '(短)사선'은 'ㄱ(ㄴ/은/ᄋᆞᆫ/는/ᄂᆞᆫ)'과 'ㄴ(ㄹ/을/ᄋᆞᆯ/를/롤)'을 나타내는 위치의 사이에 그어져 이 부호구결자가 석독구결자 'ㄱ(ㄴ/은/ᄋᆞᆫ/는/ᄂᆞᆫ)'과 'ㄴ(ㄹ/을/ᄋᆞᆯ/를/롤)'을 포함하고 있는 구성('ㅇㄱㄴ(ᄒᆞᆫᄋᆞᆯ)')임을 나타낸다.

35) 이 2점이 'ᄉᆞᄆᆞ(호리고)'를 나타낸다면 이 2점이 찍힌 위치는 'ㅁ(고)'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2장의 표 1번에서 석독구결자 'ㅁ(고)'에 대응하는 부호구결자는 {□}이고, {□}은 석독구결 'ᄉᆞᄆᆞ(호리고)에 대응한다.

다'. [云]何ㅅㄱㄴ 修習對治ㅣㅣㄴᄉᆞ <유가석 20, 8:1-8:4>
엇ᄒᆞᆫᄋᆞᆯ 修習對治이다 호리고

라. □□[36] □□□□[37] □□[38] □□[39] ⊡□□[40] ·□·

復次 三界有情 所依 之身 當云何 觀 <유가부 5, 5:8-5:15>

라'. [云]何ㅅㄱㄴ 得ㄴㄱ 所ㄴ [如]ㅎㅅㄱ 道ㄴ 修習ㅅᄆᆞ矣ㅣㄴᄉᆞᄆᆞ <유가석 20, 28:23-29:5>
엇ᄒᆞᆫᄋᆞᆯ 得ᄒᆞᆫ 바ᄅᆞᆯ ᄀᆞᆮ기 ᄒᆞᆫ 道ᄅᆞᆯ 修習ᄒᆞᆷ디다 호리고

마. □· □ □□□ ·□

是 名 第 一 欲 生 <유가부 5, 7:13-7:16>

마'. 是ㄴ 名ㅜ 三摩地自在ㅓㄴㅎㅣ <유가석 20, 19:16-19:22>
이ᄅᆞᆯ 일하 三摩地自在여 호리다

바. □· □ □□□ □[41]

是 名 第 一 樂 生 <유가부 5, 8:5-8:11>

바'. 是ㄴ 名ㅜ 毘鉢舍那支ㅇㅓ 不隨順ㅅㄱ 性ㅓㄴㅎㅈ <유가석 20, 26:19-27:3>
이ᄅᆞᆯ 일하 毘鉢舍那支아ᄀᆡ 不隨順ᄒᆞᆫ 性여 호리며

사. □· √□[42] □□□ ·□

是 名 第 三 樂 生 <유가부 5, 8:5-8:11>

---

36) 1점이 왼쪽으로 더 가 있다.
37) 1점이 왼쪽으로 더 가 있다.
38) 1점이 왼쪽으로 더 가 있다.
39) 1점이 더 왼쪽으로 가 있으나 통사구조상 'ㄴ' 위치에 찍히는 것이 맞다.
40) 1점이 석독구결자 무엇에 대응되는지 모르겠다.
41) 이승재 선생님께서는 강의 시간에 이 부호구결자를 석독구결자 'ㅈ(져)'에 대응된다고 보셨는데 그보다는 석독구결 'ㄴㅎㅈ(호리며)'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42) 아직 이 (短)역사선이 석독구결의 무엇에 대응되는지 모르겠다.

사'. 是ㄴ 名ㅏ 奢摩他支ㅇㅓ 不隨順ㅅㄱ 性ㅓ<u>ㅅㅎㅐㄱㅜㄱㅜ</u> <유가석 20, 26:19-27:3>
이롤 일하 奢摩他支아긔 不隨順ᄒᆞᆫ 性여 호리인뎌

아. □ \□[43] □
如 前 說 <유가부 8, 16:2-16:3>

아'. 前ㅋ <u>說ㅅㄱ [如]ㅈㅅㄲㅅㅣ</u> <유가석 20, 22:23-23:6>
前의 說ᄒᆞᆫ 다ᄒᆞᆲ디다

위 (12)에 나온 예들을 보면 '2점'이[44] 'ㅅ(ㅎ)'를 포함한 구성에 대응됨을 알 수 있다. '2점'은 'ㅅ(ㅎ)'를 포함한 구성을 나타내면서 'ㅅᄉㅁㅗ(호리고)'의 경우에는 'ㅁ(고)'를 나타내는 위치에, 'ㅅㄲㅅㅣ(ᄒᆞᆲ디다)'와 'ㅅㅎㅐ(호리다)'의 경우에는 'ㅣ(다)'를 나타내는 위치에, 'ㅅㅎㅏ(호리며)'의 경우에는 'ㅏ(며)'를 나타내는 위치에, 'ㅅㄱ(혼)'의 경우에는 'ㄱ(ㄴ/은/온/는/눈)'을 나타내는 위치에 기입되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ㅅㅎㅐㄱㅜㄱㅜ(호리인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또한 '□者({.□·})'에서 {·□}도 석독구결의 'ㅅㄱㅅㄱ(ᄒᆞᆫ돈)'에 대응하여 2점이 'ㅅ(ㅎ)'를 포함한 구성을 나타내면서 'ㄱ(ㄴ/은/온/는/눈)'을 나타내는 위치에 기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제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우리는 '□者'가 {.□·}, {.□/(또는 .□-)}, {·□·□}, {.□··}, {.□··}, {□·}, {.□□}으로 혼기된 것과 { □·¯}, {□·¯}으로 혼기된 것 중에 올바른 표기를 찾을 수 있으며, 또 그것의 해독도 할 수 있다.

우선 '□者'가 {.□·}, {.□/(또는 .□-)}, {·□·□}, {.□··}, {.□··},

43) 부호구결 자료『瑜伽師地論』권8에는 說에 (短)역사선이 연결되어 있으나 說에 연결되었다기보다는 前에 붙어 '[如]ㅈㅅㄲㅅㅣ(다ᄒᆞᆲ디다)'를 나타내는 듯하다(정확히는 如에 붙어야 할 역사선이다).

44) 혹은 '(短)선'으로 표기되기도 하였다.

{□·}, {.□□}으로 혼기된 것 중에 올바른 표기는 '{.□·}'이고 이의 독법은 'ㅛㅣㄴㄱㅅㄱ[者](이다ᄒᆞᆫ든)'이다. 다음으로 '□者'가 { □· ¯}, {□· ¯}으로 혼기된 것 중에 올바른 표기는 { □· ¯}이고 이의 독법은 'ㅛㄲㅅㄱ[者](잃든)'이다.

4. 결론

이 글은 『瑜伽師地論』 권5와 권8에 기입된 부호구결 '□者({.□·})'과 '□者({ □· ¯})'의 독법을 밝히기 위해서 쓰여졌다. 부호구결 자료는 발견된지 얼마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부호구결 자료에 기입된 점과 선의 독법을 알 수 없는 것이 많다. 그리고 '□者'의 경우 {.□·}, {.□/(또는 .□-)}, {·□}, {.□·}, {.□·}, {□·}, {.□□}으로 혼기된 것과 { □· ¯}, {□· ¯}으로 혼기된 것이 있어서 어느 것이 올바른 표기인가를 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결론들을 얻어낼 수 있었다.

첫째, '□者({.□·})'에서 {.□}으로 표기된 것은 석독구결자 'ㅣ(다)'를 포함한 구성 'ㅛㅣ(이다)'에 대응한다.

둘째, 부호구결에서 2점 혹은 (短)선으로 혼기된 것은 2점을 표기한 것이고, 이 2점은 'ㆁ(ᄒᆞ)'를 포함한 구성을 나타낸다. '□者({.□·})'에서 {·□}으로 표기된 것은 'ㆁㄱㅅㄱ[者](ᄒᆞᆫ든)'에 대응한다. 이때 2점 자체가 'ㆁ(ᄒᆞ)'를 포함한 구성임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가운데 한 점은 'ㆁㄱ(ᄒᆞᆫ)'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 나머지 한 점은 'ㅅㄱ[者](든)'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셋째, '□者({ □· ¯})'에서 { □ }으로 표기된 것은 석독구결자 'ㅛ(이)'에 대응한다.

넷째, 부호구결에서 '(短)선'으로 표기된 것 중에는 2점과 혼기되지 않고 일정하게 '(短)선'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있다. 이런 표기는 'ㅅ(ㅎ)'를 포함한 구성을 나타내지 않는다. '□者({ □⊡ ¯})'에서 {□¯}이 그 예이다. {□¯}은 석독구결자 'ᄑ(ㅱ/읊/옳)'에 대응한다. '□者({ □⊡ ¯})'의 {⊡¯}은 {□¯}은 'ᄑ(ㅱ/읊/옳)'을 나타내고 {⊡}은 'ㅅㄱ[者](둔)'을 나타내어 석독구결 'ᄑㅅㄱ[者](ㅱ(/읊/옳)둔)'에 대응한다.

결론적으로 '□者'가 {.□⊡}, {.□⁄(또는 .□-)}, {⊡··}, {.□··}, {.□··}, {□⊡}, {.□□}으로 혼기된 것 중에 올바른 표기는 '{.□··}'이며 이의 독법은 'ㅐㅣㅅㄱㅅㄱ[者](이다ᄒᆞ둔)'이다. 그리고 '□者'가 { □⊡ ¯}, {□⊡ ¯}으로 혼기된 것 중에 올바른 표기는 { □⊡ ¯}이며 이의 독법은 'ㅐᄑㅅㄱ[者](잃둔)'이다.

자료

이승재 정리, 부호구결 자료『瑜伽師地論』권5(初雕本), 1011년 이후.
_____, 부호구결 자료『瑜伽師地論』권8(初雕本), 1011년 이후.
석독구결 자료『瑜伽師地論』권20, 1246년 이후.

참고문헌

남풍현(1999),『『瑜伽師地論』석독구결의 연구』, 태학사.
_____(2000),「고려시대의 점토구결에 대하여」, 제27회 국어학회 공동연구회 발표논문집.
小林芳規(2000),「일본에 있어서 각필문헌 연구의 현상과 전망」,『구결연구』6.
윤행순(2000),「일본의 오코토점과 한국의 초조대장경에서 보이는 부호구결의 비교」, 제23회 구결학회 공동연구회 발표논문집.

이승재(2000ㄱ), 「국어 문자 체계의 발달」, 『한국문화사상대계』 1(영남대학교 개교 50주년 기념),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_____(2000ㄴ), 「새로 발견된 각필 부호구결과 그 의의」, 『새국어생활』 10:3.

'者'字의 符號口訣에 ついて

徐珉旭

この論文は『瑜伽師地論』卷5と卷8に記入されている符号口訣'□者({.□··})'と'□者({ ˙□·¯})'の讀み方を明らかにするために書かれてある。そして、'□者'字の符号口訣の論議中に符号口訣は次のような特徴があることが分かった。まず、一つの符号口訣字はそれに對當される一つの釋讀口訣字を現わすより對當釋讀口訣字を含んだ構成を現わしている。例えば、符号口訣字{□}は釋讀口訣字'ㄱ(ㄴ/ᄋᆞ/ᄉᆞ/ᄂᆞ/ᄂᆞ)'だけが對當されるのではなく、'ㄱ'を含んだ釋讀口訣字構成を現わす機能をする。次は符号口訣には'2点'と'(短)線'が混記になって出現される例がある。この場合、筆者は'2点'と'(短)線'が同じ統辭構造上、混記されて現われるのであれば、それは'2点'を表記したとみ、同じ統辭構造で'(短)線'だけで表記した形態が一定して現われるのであれば、それは'(短)線'自体がある形態を表記するためのものとみた。そして、符号口訣の'2点'が釋讀口訣の'ㅅ(ᄉᆞ)'を含んだ構成を現わしているのではないか假定している。

〈부록〉

『瑜伽師地論』 권8과 권5에 기입된 '者'字의 부호구결

1. '口者'({.□·})

煩惱自性者 <유가부 8, 1:14-1:16>
煩惱分別者 <유가부 8, 1:17-1:18>
薩迦耶見者 <유가부 8, 3:4-3:6>
邊執見者 <유가부 8, 3:8-3:10>
邪見者 <유가부 8, 3:12-3:14>
見取者 <유가부 8, 3:15-3:16>
戒禁取者 <유가부 8, 3:19-3:21>
貪者 <유가부 8, 4:1-4:5>
恚者 <유가부 8, 4:5-4:8>
慢者 <유가부 8, 4:8-4:11>
無明者 <유가부 8, 4:11-4:14>
疑者 <유가부 8, 4:14-4:16>
煩惱因者 <유가부 8, 4:17-4:20>
所依故者 <유가부 8, 4:20-5:2>
所緣故者 <유가부 8, 4:20-5:2>
煩惱位者 <유가부 8, 5:3-5:5>
煩惱門者 <유가부 8, 5:8-5:9>
煩惱顚倒攝者 <유가부 8, 6:7-6-10>
想倒者 <유가부 8, 6:10-6:14>
心倒者 <유가부 8, 6:10-6:14>
倒根本者 <유가부 8, 6:17-6:20>
顚倒體者 <유가부 8, 6:17-6:20>
倒等流者 <유가부 8, 6:17-6:20>
煩惱差別者 <유가부 8, 7:1-7:5>
結者 <유가부 8, 8:2-8:8>
隨眠者 <유가부 8, 8:2-8:8>
隨煩惱者 <유가부 8, 8:2-8:8>
纏者 <유가부 8, 8:2-8:8>
暴流者 <유가부 8, 8:8-8:13>
取者 <유가부 8, 8:8-8:13>
繫者 <유가부 8, 8:8-8:13>
盖者 <유가부 8, 8:13-8:16>
株杌者 <유가부 8, 8:13-8:16>
根者 <유가부 8, 8:16-8:22>
漏者 <유가부 8, 8:16-8:22>
瞖者 <유가부 8, 8:16-8:22>
拘导者 <유가부 8, 8:16-8:22>
煩惱過患者 <유가부 8, 8:22-8:23>
補特伽羅相差別建立者 <유가부 8,10:5-10:6>
淸淨資具者 <유가부 5, 2:4-2:10>
住持資具者 <유가부 5, 2:4-2:10>
聖財所生樂者 <유가부 5, 2:10-2:12>
有灾橫者 <유가부 5, 3:13-3:19>
復次飮食受用者 <유가부 5, 5:23-6:4>
復次婬欲受用者 <유가부 5, 6:12-6:17>

復次生建立者 <유가부 5, 7:13-7:16>
復次自體建立者 <유가부 5, 9:3-9:4>
因等相者 <유가부 5, 9:22-10:1>
內分力者 <유가부 5, 10:9-10:13>
外分力者 <유가부 5, 10:13-10:16>
因等依處者 <유가부 5, 11:9-11:13>
因等差別者 <유가부 5, 11:14-11:14>
十因者 <유가부 5, 11:14-11:17>
四緣者 <유가부 5, 11:18-11:19>
五果者 <유가부 5, 11:19-11:20>
因等建立者 <유가부 5, 11:21-12:3>
能生因者 <유가부 5, 15:12-15:16>
俱有因者 <유가부 5, 15:12-15:16>
無間滅因者 <유가부 5, 15:12-15:16>
尋伺體性者 <유가부 5, 16:15-16:17>
尋伺所緣者 <유가부 5, 16:17-16:18>
尋伺行相者 <유가부 5, 16:18-16:20>
尋伺等起者 <유가부 5, 16:20-16:20>
尋伺差別者 <유가부 5, 16:21-16:22>
尋伺決擇者 <유가부 5, 16:22-17:3>
尋伺流轉者 <유가부 5, 17:3-17:8>
如理作意相應 尋伺依處者 <유가부 5, 18:7-18:10>
如理作意相應 尋伺求者 <유가부 5, 18:15-18:17>
不以非法及兇險如理作意相應 尋伺受用者 <유가부 5, 18:17-18:21>
如理作意相應 尋伺正行者 <유가부 5, 18:21-19:2>
聲聞乘資糧方便者 <유가부 5, 19:2-19:5>
獨覺乘資糧方便者 <유가부 5, 19:2-19:5>
波羅蜜多引發方便者 <유가부 5, 19:2-19:5>
?久遠滅因者 <유가부 5, 15:12-15:16>

2. '口者'({.□/(또는 .□-)})

親近故者 <유가부 8, 4:20-5:2>
邪教故者 <유가부 8, 4:20-5:2>
數習故者 <유가부 8, 4:20-5:2>
作意故者 <유가부 8, 4:20-5:2>
由犯故者 <유가부 8, 5:21-6:7>
由生故者 <유가부 8, 5:21-6:7>
由相續故者 <유가부 8, 5:21-6:7>
由事故者 <유가부 8, 5:21-6:7>
由起惡業故者 <유가부 8, 5:21-6:7>
由究竟故者 <유가부 8, 5:21-6:7>
見倒者 <유가부 8, 6:10-6:14>
有怖畏者 <유가부 5, 3:13-3:19>
有怨對者 <유가부 5, 3:13-3:19>
有燒惱者 <유가부 5, 3:13-3:19>
不能斷後世大苦者 <유가부 5, 3:13-3:19>

3. '口者'({□·□})

煞生者者 <유가부 8, 10:6-10:9>

4. '口者'({.□·□})

窣極暴惡者 <유가부 8, 10:6-10:9>
血塗其手者 <유가부 8, 10:6-10:9>

害極害執者 <유가부 8, 10:9-10:11>
无有羞耻者 <유가부 8, 10:9-10:11>
无有哀愍者 <유가부 8, 10:9-10:11>
於煞生事若未遠離者 <유가부 8, 10:21-10:23>
於他所有者 <유가부 8, 11:6-11:9>
卽此名爲可盜物數者 <유가부 8, 11:9-11:11>
若自執受者 <유가부 8, 11:11-11:16>
不與而取者 <유가부 8, 11:11-11:16>
不與而樂者 <유가부 8, 11:11-11:16>
於所不與不捨不棄而生希望者 <유가부 8, 11:11-11:16>
自爲而取者 <유가부 8, 11:19-11:23>
饕餮而取者 <유가부 8, 11:19-11:23>
不淸而取者 <유가부 8, 11:19-11:23>
不淨而取者 <유가부 8, 11:23-12:2>
有罪而取者 <유가부 8, 11:23-12:2>
復次欲邪行者者 <유가부 8, 12:9-12:18>
有治罰者 <유가부 8, 12:9-12:18>
有障导者 <유가부 8, 12:9-12:18>
他妻妾者 <유가부 8, 12:21-13:2>
他所攝者 <유가부 8, 12:21-13:2>
若由兇詐者 <유가부 8, 12:21-13:2>
若由强力者 <유가부 8, 12:21-13:2>
若由隱伏者 <유가부 8, 12:21-13:2>
卽於此事非理欲心而行邪行者 <유가부 8, 13:2-13-5>
復次諸妄語者者 <유가부 8, 13:8-13:13>
若王者 <유가부 8, 13:8-13:13>
若彼使者 <유가부 8, 13:8-13:13>
若別者 <유가부 8, 13:8-13:13>
若衆者 <유가부 8, 13:8-13:13>
若大集中者 <유가부 8, 13:8-13:13>
若已知者 <유가부 8, 13:8-13:13>
若已見者 <유가부 8, 13:8-13:13>
若由自因者 <유가부 8, 13:13-13:15>
因怖畏者 <유가부 8, 13:15-13:18>
因味著者 <유가부 8, 13:15-13:18>
知而說妄語者 <유가부 8, 13:15-13:18>
復次離間語者者 <유가부 8, 13:20-14:2>
若爲破壞者 <유가부 8, 13:20-14:2>
聞此語已向彼宣說者 <유가부 8, 13:20-14:2>
破壞和合者 <유가부 8, 13:20-14:2>
隨印別離者 <유가부 8, 13:20-14:2>
憙壞和合者 <유가부 8, 14:2-14:5>
樂印別離者 <유가부 8, 14:2-14:5>
說能離間語者 <유가부 8, 14:2-14:5>
復次麤惡語者者 <유가부 8, 14:9-14:9>
此中毒螫語者 <유가부 8, 15:9-15:13>
麤獷語者 <유가부 8, 15:9-15:13>
復次諸綺語者者 <유가부 8, 15:9-15:13>
復次諸貪欲者者 <유가부 8, 16:4-16:8>
由猛利貪者 <유가부 8, 16:4-16:8>
於財者 <유가부 8, 16:4-16:8>

具者 <유가부 8, 16:4-16:8>
凡彼所有定當屬我者 <유가부 8, 16:8-16:10>
復次瞋恚心者者 <유가부 8, 16:11-16:17>
惡意分別者 <유가부 8, 16:11-16:17>
當煞者 <유가부 8, 16:11-16:17>
當害者 <유가부 8, 16:11-16:17>
當爲衰損者 <유가부 8, 16:11-16:17>
復次諸邪見者者 <유가부 8, 16:18-16:20>
起如是見者 <유가부 8, 16:18-16:20>
立如是論者 <유가부 8, 16:18-16:20>
无有施與无有愛養无有祠祀者 <유가부 8, 16:20-16:23>
通慧者 <유가부 8, 17:16-17:19>
已證者 <유가부 8, 17:16-17:19>
具足者 <유가부 8, 17:16-17:19>
顯示者 <유가부 8, 17:16-17:19>
功用者 <유가부 8, 17:19-17:22>
又誹謗流轉者 <유가부 8, 17:22-18:4>
謗還滅者 <유가부 8, 17:22-18:4>
謂翻欲邪行中諸梵行者者 <유가부 8, 18:6-18:9>
盡壽行故久遠行故者 <유가부 8, 18:9-18:15>
初句者 <유가부 8, 18:9-18:15>
第二句者 <유가부 8, 18:9-18:15>
第三句者 <유가부 8, 18:9-18:15>
第四句者 <유가부 8, 18:9-18:15>
又翻妄語中可信者 <유가부 8, 18:21-19:2>
可委者 <유가부 8, 18:21-19:2>
應可建立者 <유가부 8, 18:21-19:2>
无有虛誑者 <유가부 8, 18:21-19:2>
復次法相差別建立者 <유가부 8, 19:5-19:6>

5. '口者'({.□·})

乃至極下梞多蟻等諸衆生所者 <유가부 8, 10:18-10:21>
若在聚落者 <유가부 8, 11:6-11:9>
若閑靜處者 <유가부 8, 11:9-11:11>
於不與取若未遠離者 <유가부 8, 12:3-12:4>
於諸父母等所守護者 <유가부 8, 12:9-12:18>
彼當自獲種種憂惱者 <유가부 8, 16:11-16:17>

6. '口者'({□·})

復次不與取者者 <유가부 8, 11:6-11:9>
適悅資具者 <유가부 5, 2:4-2:10>
滋長資具者 <유가부 5, 2:4-2:10>
方便因者 <유가부 5, 15:12-15:16>

7. '口者'({.□□})

竊相欣欲而行欲行者 <유가부 8, 13:2-13:5>

如理作意相應 尋伺事者 <유가부 5, 18:10-18:15>

8. 'ㅁ者'({ ㄱ□·¯})

又此諸句略義者 <유가부 8, 10:23-11:2>
又略義者 <유가부 8, 11:2-11:5>
此中略義者 <유가부 8, 12:4-12:7>
此中略義者 <유가부 8, 13:6-13:7>
此中略義者 <유가부 8, 14:5-14:8>
此中略義者 <유가부 8, 16:2-16:3>
此中略義者 <유가부 8, 16:8-16:10>
此中略義者 <유가부 8, 17:19-17:22>
此中略義者 <유가부 8, 19:2-19:4>
此中差別者 <유가부 8, 20:15-20:18>

9. 'ㅁ者'({□·¯})

此中略義者 <유가부 8, 13:18-13:19>